

구비설화 속 노인의 생존 전략과 공생논리*

권 경 숙**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4. 노인설화를 통한 보편적 인간문제 |
| 2. 인간 보편적 존재로서의 노인 | 와 사회 관계적 소통의 가치 성찰 |
| 3. 사회 관계적 소통 존재로서의 노인 | 5. 결론 |

국문초록

현대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에 대한 전통적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자녀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의 이하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역할 상실과 가치체계의 붕괴를 인식한 현대사회는 노인복지나 고용의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점차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도 ‘구비설화 속 노인의 생존 전략과 공생논리’라는 논제 속에서 노인이 주체적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관련 연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6S1A5B5A07916487).

** 동아대학교

는 고전문학 전반에 걸쳐 산발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구비설화에서 노인과 관련된 연구 활동 역시 활발하지 않다. 또한 그 연구는 대부분 타자로서의 노인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노인을 조망하였다. 나아가 우리 삶의 멘토 차원에서 노인의 지혜는 여전히 필요함을 살폈다. 따라서 노인설화를 통한 인문학적 가치 성찰을 제기하는 바이다.

주제어 : 구비설화, 노인, 소통, 문제해결, 자아 정체성, 성적 욕구, 생존 전략, 공생

1. 문제제기

요즘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가 주목받고 있다. ‘사람책’, 즉 리빙북을 대출해 주는 도서관이 늘고 있고, 각 지자체의 ‘사람책’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종이책에서 느끼지 못했던, 현장성, 사실성을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에서 ‘사람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¹⁾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등에게 직접 이야기로 들으며, 꿈을 꾸고 희망을 품으며 고민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은 ‘문자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구술성’의 효과이다. 이는 문자문화와 구술문화가 공존하는 색다른 문화의 탄생이다. 따라서 구비설화가 구현되는 현상이 바로 살아 있는 도서관, ‘리빙 라이브러리’인 것이다. 설화 구연자들(사람책)은 사랑방(도서관)에 모여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뉘며 구성하여 삶의 체험, 미래 방안제시, 문제해결 등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는 멘토들이다. 우리 삶의 경험과 지혜를 축적한 노인들이

1) 이재형, 『리빙 라이브러리의 비판적 검토와 독서교육적 함의』, 『동남어문』 제41집, 동남어문학회, 2016, 70-74쪽.

우리의 멘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은 우리 구비설화 각편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멘토 역할을 한다. 즉, 주도적으로 질서를 바로잡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아울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관련 구비설화연구에서는 노인은 공경의 대상, 봉양의 대상인 효의 절대적인 존재로만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타의 고전문학 전반에 걸쳐서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즉, 노인관련 연구는 『삼국유사』²⁾, 야담과 소설³⁾, 고전극⁴⁾, 고전수필⁵⁾ 등이다.

구비설화에서도 노인관련 연구가 몇 편 있기는 하다. 즉, 정상진⁶⁾은 노인의 재혼담 속에서 자식들의 효행 의식을 살폈고, 이인경⁷⁾은 부모 봉양은 딸이나 양자도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아실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는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노인이 아니라 봉양의 대상, 타자로서의 노인을 조망하였다. 최기숙⁸⁾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재산의 증여로 인해 가족

2) 간호옥, 「한국 說話文學에 나타난 老人에 대한 孝思想 연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9집, 인문과학연구소, 2000. 김양진,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세얼어문논집』 제17집, 세얼어문학회, 2005.

3) 김양진, 「한국고전문학의 노인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4) 전성희, 「한국 고전극에 나타난 여성노인 연구-『춘향전』의 ‘월매’와 『봉산탈출』의 ‘미얄할미’를 중심으로-」,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2002.

5) 김국희,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원형의 계승과 변이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성림, 「女性老人들의 傳統的 삶의 價值」, 『한국 노년문학연구』 IV,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2004.

6) 정상진, 「구비 <노인재혼담>에 투영된 효의식」, 『한국민족문화』 2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7)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8) 최기숙, 「구비설화에 나타난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가족관」-‘친 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411-5)’ 유형으로 본 ‘재산증여’와 가족의 해체/재구성-,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회, 2012.

이 해체·재구성되는 현상은 노인세대가 자식에게 의탁하려는 불안한 심리가 노출되었다고 보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대화국면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⁹⁾. 이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보편적인 인간 문제로 조명하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하였다는 데는 큰 의의를 둔다. 이 연구 역시,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타자로서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노인을 조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인은 사회적으로 공경의 대상, 가정적으로는 부양의 대상이라는 효사상의 지배문화가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규식¹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노인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설화 가운데 ‘문제형’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즉, 고려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폭력과 해소, 대국이 소국을 억압하는 폭력과 해소의 과정이 액자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고려장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삶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가 타자로서의 노인을 조망하였다면, 이 연구¹¹⁾는 주체로서의 노인을 조망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주체적인 역할이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설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설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¹²⁾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에게 대한 기존 논의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적·교육학적인 논의도 풍성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노인의 건강문

9) 최기숙, 『노화의 공포와 공생 지향의 상상력-구비설화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436-11유형)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회, 2013.

10) 정규식,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설화의 재해석과 인문학적 성찰』, 『국어국문학』 177집, 국어국문학회, 2016.

11) 정규식, 위의 논문.

12) 본 연구에서는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각편은 제외한다.

제, 사회적 지위 상실감 등에 대한 현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체자로서 활약하는 실존적 역할을 하는 노인을 조망하고 나아가 우리 삶의 멘토로서의 노인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따라서 ‘구비설화 속 노인의 생존 전략과 공생논리’라는 논제에서 노인의 문제를 주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노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인관련 연구가 대부분 타자의 시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됨을 문제 제기하면서 한국인의 생활 속에 담겨진 노인층의 구술담화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피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구비설화에서 노인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노인을 정의하는 데도 여러 설로 분분하다.¹³⁾ 마찬가지로 문학적으로도 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구비설화에서 노인을 정의하기란 매우 애매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이야기’를 규정하고 ‘노인’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어떤 각편을 ‘노인이야기’로 한정할 것인가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¹⁴⁾에 수록된 설화는 채록할 때부터 노인세대로부터 이야기를 채록하였기 때문에 다수가 노인세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계』에 수록된 이야기의 관점은 노인들에 의해 이야기가 조율된다.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이 이야기의 세계에 중심이 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야기’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 한두 가지 기준을 세워보기로 한다.

하나는 노인을 상징하는 호칭이 드러나는 각편이다. 즉, 할아버지, 할

13) 최근 65~69세 연소노인, 70~74세 중고령 노인, 75~84세 고령노인, 85세 초고령 노인이라고 함(장일순,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178쪽)

14) 이후로는 『대계』로 표기함.

머니, 노인, 영감, 할멈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각편이다. 그러나 호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용상 노인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노인관련 호칭은 없지만, 노인의 성향이 나타난다든가, 노인과 관련된 내용 즉, 행간에서 노인의 행위가 나타나는 각편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과제에서 사용할 ‘노인’의 용어에 대한 문제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나이든 사람’을 통틀어 지시하는 지칭어가 아니다. 그것은 익명의 노년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이다.¹⁵⁾ 사실 당사자인 노인들도 ‘노인’이란 호칭에는 썩 유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자는 현대의 노인과 관련한 사회현상 및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구비설화 속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가려내어 그 형태와 양상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보일 것이다. 나아가 현대 노인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긴다. 물론 현대의 노인문제와 과거의 노인문제가 동일할 수도 없고, 또 과거의 방법으로 현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구비설화 속에는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유사한 상황이나 문제가 존재한다. 즉,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사회노년학 이론 중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과 활동이론¹⁶⁾(Activity Theory)을 적용하여 살필 것이다. 지속이론에 적용할 유형은 ‘인간 보편적 존재로서의 노인’이다. 이 유형은 성적 욕구를 성취하거나 자신의 신변 변화를 스스로 해결하는 각편이다. 활동이론에 적용할 유형은 ‘사회관계적 소통 존재로서의 노인’이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을 해결한다든가, 참된 인간성을 제시하는 각편을 말한다. 연구자는 이

15) 정진웅, 앞의 책, 79-105쪽.

16)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 2012, 38-39쪽 참조

를 통해서 노인 삶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수준에서의 담론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구비설화 속에 나타나는 노인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보편적 인간의 문제와 사회 관계적 소통 망에서의 노인 성찰의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인간 보편적 존재로서의 노인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당사자인 노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전통적인 시선을 탈피하여 사회적으로는 노인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별적 자아감을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개인의 적응력이나 적응 양식은 노년 이전에 형성된 패턴이며, 이 패턴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된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것이 사회 노년학 이론 중 지속이론이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면 모든 노인은 개인적으로는 가치 상실을 경험하고 가정적으로는 부양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주변적 존재, 또는 잉여적 존재로 전락한다고 여기는 데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이러한 노인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은 분석 대상 유형인 ‘인간 보편적 존재로서의 노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욕구에 근거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중 성적 욕구에 초점을 두었다. 성적 욕구는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표현하는 욕구이기도 하다. 둘째는 생물학적인 존재유지 욕구이다. 스스로 공포와 위기를 극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성적 욕망형’과 ‘위기 극복형’을 설정하였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방법)는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인간 개인의 본

능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근거한 것인데 두 가지로 분류된다. [표1]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인간 보편적 존재로서의 노인				
세부	번호	각편 제목	대계 번호	쪽수 및 파일
㉗성적 욕망형	①	조리장수 따라간 과부 어머니	7-10	517-518
	②	조리장수를 기다리는 어머니	7-10	MXL 파일
	③	조리장수와 홀 시어머니	7-16	MXL 파일
	④	진보 청송 조리 장수	7-6	628-632
	⑤	안사돈 보고 병이 난 바깥사돈	7-2	MXL 파일
	⑥	안사돈을 탐낸 바깥사돈	7-17	MXL 파일
	⑦	바깥사돈과 안사돈의 동침	8-4	MXL 파일
	⑧	바깥사돈과 안사돈의 만남	7-7	MXL 파일
	⑨	안사돈과 바깥사돈의 사랑	7-18	MXL 파일
	⑩	바깥사돈을 기다리는 안사돈	7-10	MXL 파일
	⑪	칠십 노인의 새 장가가기	8-3	694-697
	⑫	처녀장가 든 영감	7-8	1243-1244
㉘위기 극복형	⑬	영감 진가(眞假) 소동	7-16	618-621
	⑭	영감으로 둔갑한 쥐(1)	7-13	111-112
	⑮	주인 영감으로 둔갑한 쥐	7-8	162-164
	⑯	백 년 해골 써서 과거한 노인	9-2	262-266
	⑰	백일기도로 호식 면한 노인	7-12	101-104
	⑱	소금장수 노인	6-6	462-464

위의 [표1]에서 ㉗의 ‘성적 욕망형’은 ①~⑫의 각편이다. 해당 유형은 노인이 성에 대하여 주체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신의 원초적 본능을 여지없이 표현하는 이야기이다. ㉘의 ‘위기 극복형’은 ⑬~⑱까지이다. 해당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타자에 의해 자신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노인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 나가는 이야기이다.

해당 유형의 설화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인공의 뒤편은 노인의 주체성이다. 텍스트에서 노인이 인식하는 문제적 상황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설화 각편의 공통된 요소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인의 행동이다. 이러한 해당 유형을 통해 노인이 추구하는 윤리나 덕목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넘어 노인 자신에 대한 기대 욕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성적 욕망형 : 자존감 구현으로서의 존재

서사문학에서 작중인물들의 성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담론은 애정의 서사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애정이나 사랑이라는 어휘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보편의 정서적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 그간 금기시되었던 노인의 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노년의 기간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노년기의 질적인 삶을 위하여 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긴다. 노년기 성문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은 성인기를 통해 노년까지 꾸준히 진행되며 아주 활발하다¹⁷⁾고 한다. 따라서 구비설화에서 성을 매개로 하는 노인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설화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이야기는 현실을 초월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¹⁸⁾ 이는 구연하는 주체와 성적 표현 사이에 비현실적 내용이 조성되기는 하나 그런 현상이 합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연하는 주체의 노력이 꺾인하여 비현실적 내용이 합리성 영역으로 진입했을 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표1]의 ㉔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서사전개에 따른다.

- ㉑ 홀로된 노인이 외로워한다.
- ㉒ 외로운 노인이 어떤 노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 ㉓ 첫눈에 반한 노인이 상대의 노인을 그리워한다.
- ㉔ 노인은 그리워서 병이 나거나 조바심을 낸다.
- ㉕ 노인은 직접 행동에 옮기거나 애둘러서 감정을 표현한다.

17) 홍숙자, 『노년학 개론』, 夏雨, 2010, 327쪽.

18) 권경숙, 『商賈說話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90쪽.

⑨ 노인은 상대의 노인과 결합에 성공/실패한다.

해당 유형의 이야기는 홀로된 노인이 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대의 노인을 보고 반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시키거나 실패한다. 인간의 본능으로서 성적인 욕구는 나이가 들면서 성과 관련된 활동 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¹⁹⁾ 하지만, 구비설화 각편 중에는, 노인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인 표현을 한다. [표1]에서 ①~④의 각편 중에는 ‘출다’는 환경적인 의미를 성적인 욕구의 의미로 예둘러 표현한다. 그 예로 ④의 각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마이 혼자 계시는데...메누리라고 인제 아즉상 가주 들와와서 “어머님, 오늘밤에 뜨십디까?”...“아이구 야야, 뜨시기는 머가 뜨서, 출아 얼어죽을 뻔했다.”...한 번에는 봄쫘뵈겠다. “조리 사시오” 카고 땡기이, 떡 들온다...노인한테 “자도 괜찮으이겨? 노인한테 자이소”...인제 그 날 밤에 잤다...아직에...아들하고 또 아즉상을 떡 “어머이, 방이 뜨십디꺼?” “아이구 야야, 오늘 밤에는 삼 년 사 년 어든 궁디 다 녹았다.”

위의 각편 내용에는 홀로된 노모가 자신의 외로움을 ‘출다’고 표현하지만, 자식들은 그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모가 거처하는 방에 온도만 높여줄 뿐이다. 노모는 늘 “출아 얼어죽을 뻔했다”고만 한다. 그런데 조리장수와 의 하룻밤은 “삼 년 사 년 어든 궁디 오늘 밤에 다 녹았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단단하고 두껍게 얼었던 얼음이 녹을 정도로 성욕을 해소하였음을 예둘러 표현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몸이나 여성의 성은 늘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노모는 성욕의 실현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성으로 귀결되는

19) Michel Hersen; Vincent B. Van Hasselt 저 · 이장호 외 11인 역, 『임상노인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9, 277쪽.

행복을 주도적으로 쟁취한다. 이옥은 ‘사람에 대한 관찰은 정을 살피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 정에 대한 관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²⁰⁾고 하면서 ‘남녀의 정’을 강조한다.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노모 안에 있는 남성성의 갈망은 보편적인 인간의 성적 욕망이 애둘러 표현된 것뿐이다.

다음 각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표1]에서 ⑤~⑩의 각편은 홀로된 노인이 사돈 영감·할멈을 보고 반하는 이야기이다. 그 예로 ⑤의 각편을 살펴보도록 한다.

안사돈을 보고…상사병이 나…가주고 그렇게 앓는데, …딸보고 밤새도록 아바이 곁에 앉아서…그 얘기를 하드래요. “그러마 아부지가 여복(女服)을 채려가주고 우리집으로 한번 오시라꼬”…인제 그 참 그 방에 잤어요…자고나야…“아이 집에 볼 일이 바쁘다.”고…대문밖에 나서서요…안사돈이…“자주 오시오 자주 오시오라고.”

위의 각편은 홀아비 사돈이 과부 안사돈을 보고 상사병이 난다. 딸은 아버지에게 여복(女服)을 하여 자신의 시댁을 방문하게 한다. 그 후 여복을 한 홀아비 사돈은 과부 안사돈과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이튿날 홀아비 사돈은 급히 집을 나서는데, 안사돈이 “자주 오시오 자주 오시오라고.” 배웅을 한다. 처음에는 홀아비가 자신의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복을 하고 접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사돈의 성욕까지 해소시켜주었다. 그것은 과부 안사돈이 홀아비 사돈을 배웅하면서 “자주 오시오”라는 언행에서 안사돈의 심리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각편에서 아버지는 안사돈이 마음에 들어 여복을 하고, 시어머니는 동음이의어로 자신들의 본색을 은폐한다. 아버지의 행위는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혼인 전에 고관대작의 딸을 훔쳐보기 위해 여복을 하는 것

20) 이옥, 『傀儡』, 『이옥전집』2권, 휴머니스트, 2009, 411쪽.

처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 여장을 하는 수법과 동일하다. 또한 시어머니의 이러한 어법은 진리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여장남자의 남성과 동음이의어를 구사하는 여성의 어법은 동일한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각편에서는 위의 두 각편의 내용과는 다르게 노인이 혼인을 하여 자신의 성정체성을 지켜나간다. [표1]에서 ⑪, ⑫의 각편은 노인이 혼인하는 이야기이다. 각편 ⑪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 자식이 없어서 장질(長姪)로...양재로 세웠는데...그자부가...큰 도미로...한 바리사 가 와...저녁에 안 해 주고...아침에도 안해 줘...그래...쫓아내 버리고, 칠십이 된 노인이 그 장개를 들어...아들이 샘 형제가...나 가이고 그 참, 백대천석군(百代千石君) 만대유전(萬代遺傳)하더라.

위의 내용은 양자로 들인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금치 못하여 양자부부를 내 쫓고 노인 자신이 혼인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야기이다. 늘그막에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였는데, 며느리가 “큰 도미로...저녁에 안 해 주고...아침에도 안 해 줘”서 노인은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칠 십이 된 노인이 그 장개를 들어 가이고 그래 아들이 샘 형제’를 낳고 행복하게 산다. 늙은 나이에 양자부부의 보살핌을 기대했던 노인은 성을 잇고 지내다가 며느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잇고 있었던 남성의 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 각편에서는 양자의 부정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적자의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칠십 노인이 생남을 했다는 것은 적자의 중요성을 강조함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노인들의 정력 내지는 성욕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생식력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성적 욕망은 보편적 인간의 본능임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성적 욕망형에서 나타나는 에로스는 절대 ‘터부’의 대상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에로스야말로 자연스런 발로이자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항의 유형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위기 극복형 : 현존 지향성으로서의 존재

공포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개인적 감정이다. 공포는 자신 앞에 다가올 강렬한 투쟁의지를 느끼게 하며,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더욱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생존을 위해 공포의 정체를 타파하고자 고민한다. 그만큼 생존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숭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화 속에도 그들이 겪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²¹⁾ 설화 각편에서 노인은 자신의 존재 여부에 위협을 받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서사전개를 따른다.

- ㉠ 노인은 자신의 존재 유무에 위협을 받는다.
- ㉡ 노인은 쫓겨나거나/짐승의 공격을 받거나/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 ㉢ 노인은 고난을 겪는다.
- ㉣ 노인은 고난을 극복하여 자신의 존재(진짜영감/과거급제/부의 축적 등)를 되찾는다.

해당 유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자에 의해 자신의 존재 유무에 위기를 겪는다. 그 위기는 노인이 타자에 의해 겪는 일종의 ‘상황적 폭력’²²⁾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노인을 백해무익한 쥐로 표방한다든가, 짐승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는다든가, 또 재산을 갈취한다든가 등

21) 권경숙, 앞의 논문, 217쪽.

22) 이 용어에 대한 것은 앞의 정규식 논문 참고.

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노인은 그러한 상황적 폭력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켜나가는 의지를 보여준다.

[표1]에서 ⑬, ⑭, ⑮의 각편은 노인이 쥐로 변하여 가짜 영감에게 쫓겨나서 고난을 겪다가 해결책을 찾아 가짜 영감을 밀어내고 본래 자신의 위치를 되찾는다. 이 중 ⑭의 각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사랑노인이“...내가 변소를 가이...관이 늘렸는데 쥐란 녀이
씨고 방으로 드가더라...“어떤 미친 놈이 와가주고 고따우 소리를 하노?
저놈 쫓아내라.”...아들이고 미느리고 어느 기 아바인동...노인이...쫓겨
나서...“내가 여산대호를 불러가주고 쌈을 한창 할 때 그래 백호야 고
한마디만 불러돌라.”...“하이고 올 지녔에 수고 마이 했습니다.”...방맹이
를 가지고...영감을...들이패인께네...쥐가 고만 쫓지가 서발은 되는 기
휘딱 자빠지거든...“요놈들 요 와봐라...쥐모르고 사람 몰랐냐”...

위의 내용은 쥐가 부잣집 노인으로 변하여 가짜 노인행세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진짜 노인은 가족에게 아무리 자신이 진짜임을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결국 가족에게 쫓겨나는 위기를 맞는다. 노인은 산신령이 여산대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진짜 주인영감의 신분으로 돌아온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백해무익한 쥐의 속성과 노인을 동일시하였다는 점에서 ‘늬움’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노인은 외로운 고통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현존을 갈망하는 존재이다. 가족들에게 느끼는 처량한 신세, 무가치한 삶이라는, 노인을 향한 편향적인 시선에 “쥐모르고 사람 몰랐냐”라고 일침을 가한다. 하지만 가족들의 태도에서 ‘늬움은 쓸모없음’이라는 ‘고려장’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설화에서도 노인이 위기에 처한 국가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고 ‘고려장’의 제도까지 없애는 성과를 이룩한 것처럼, 노인은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

의 존재가 건재함을 가족들에게 인식시킨다.

다음 각편인 [표1]에서 ⑬, ⑭, ⑮의 내용에서 노인의 행동은 좀 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각편 ⑭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전에 어떠한 분이…장수해야 되겠다는…생각뿐…신령님이…너는…호성에 갈 사람인데…노인이 하는 이야기가…내가 남한테 소를…백 마리 조났는 기 있으이께네, …마캥 니…묵어뿌고…살리다고,”…그것도 싫다…그러면은…새로 장개오는…청년을…먹어라…노인은…그 대가로 그 집에 소 백 마리 조라…“아, 그러면 되겠다.”…“내가 살기 위해서 청년 취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내가…사실이 이마이 났다.”…그 청년이…내가 새벽에…개걸는 기 한 마리…태기쳐가주…내던지 뿌렸는데…” 동네선…‘여산대호가…죽었다꼬’…자기는 이 분 때문에 살았으니…소 백 마리는 그 집에 조라.‘이래 했는데…그 후에 그 여생을 편하기 잘 살았다는 이애깁니다.

위의 각편 내용은 노인이 장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오래 살기 위해 정성껏 치성을 올리지만 노인의 운명은 호식(虎食)할 위기에 처한다. 그것은 자신대신 소 백 마리를 “마캥 니 잡아묵어뿌고 나는 살리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노인은 젊은 청년을 대신 잡아먹고, 그 대신 청년 집에 소 백 마리를 주겠다고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한다. 자신이 평생이룬 많은 재산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고스란히 사용한다. 아무리 오래살고 싶지만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노인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삶과 죽음에 집착하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지만,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위기 극복형에서 노인은 가족들의 내침과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한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지만, 노인은 이 자명한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고뇌한다. 노인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

은 곧 죽음²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고 있다.

3. 사회 관계적 소통 존재로서의 노인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취업의 어려움, 실업의 고통 등 경제적 문제나 무차별한 폭력 등 재난과 위기 문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이렇게 재난을 단순히 자연의 위협이나 불가피한 위기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요인도 큰 재난인 것이다. 사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적층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아직 멀게만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구비설화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설화적 상상력이라는 공감적 형식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온 전통이 존재한다. 모든 노인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봉양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인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활동적이다. 노년에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적인 생활방식의 유지이다. 이것이 사회노년학 이론 중 활동이론으로써 ‘사회 관계적 소통 존재로서의 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눈 기준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인 군집(群集)욕에 근거하였다. 그것은 첫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기현시욕이다. 둘째,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욕이다. 인간은 무리 가운데 존재할 때 비로소 안정감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위 유형으로 ‘재난문제 해결형’과, ‘참된 인간성 제시형’이 있다. 이 유형에서는 극심한 혼돈과 무기력에 빠진 사회를 만드

23) 자크 라캉 저·민승기·이미션·권택영 옮김,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19쪽.

는 재난의 해결과 잘못된 인간성을 바로잡는 노인의 지혜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각편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사회 관계적 소통 존재로서의 노인				
세부	번호	각편 제목	대계번호	쪽수
㉮ 재난문제 해결형	①	신장수의 호랑이 잡기	8-3	272-275
	②	두 호랑이 잡은 술 취한 영감	6-8	456-457
	③	호랑이 덕으로 횡사 면한 아이와 노인	7-11	671-673
	④	구렁이의 재앙을 물리친 노인	8-12	327-329
	⑤	박문수가 노인 덕으로 사람 살린 이야기	3-2	722-728
	⑥	화재를 예견한 오 씨 영감	2-4	135-136
㉯ 참된 인간 성 제시형	⑦	박문수가 만난 월하노인(月下老人) (1)	6-4	184-190
	⑧	손자 길들인 동래 정씨 노인	7-1	64-66
	⑨	사람을 소로 변하게 하는 노인	7-3	688-692
	⑩	원수인 말장사와 의형제 맺은 노인	2-8	567-572
	⑪	영동 할배	8-4	434-436
	⑫	인삼장수	8-7	165-166
	⑬	팔자 좋은 영감	6-6	438-443

위의 [표2]의 ㉮에서 ①~⑥의 각편은 ‘재난문제 해결형’이다. 사실 구비설화에는 재난문제 해결형의 각편은 상당수가 있다. 위의 [표2]에서 여섯 편만 싣게 된 연유는 먼저, 지면상 모든 각편을 싣을 수 없었고, 다른 유형의 각편 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또 앞의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설화도 재난문제 해결형에 속한다. 이들 각편은 노인이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거시적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문제를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재난문제 해결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자 이 각편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또 ㉯에서 ⑦~⑬의 각편은 ‘참된 인간성 제시형’이다. 해당 설화의 공통된 요소는 노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해안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와 소통하는 노인의 이야기이다. 텍스트에서 노인

이 인식하는 사회적 문제는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노인에 대한, 사회와 이웃의 의식이 동정적이기 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주적인 개체로서 인식해주길 갈망한다. 즉 해당 유형의 각편에서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연로한 자들의 경륜과 깊은 지혜에서 어른다운 품격과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재난문제 해결형 : 통섭적 지식으로서의 소통

우리 구비설화에는 노인이 삶의 경험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노인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회의 재난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이들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우리 삶의 조력자이자 멘토들이다. 이러한 유형은 전통사회의 가치기준과 맞물려 효와 존경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향유하면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서사전개를 따른다.

- ㉠ 노인은 어떤 위험의 징후를 감지한다.
- ㉡ 사람들이 부정/침승/화재 등에 생명이 위태롭다.
- ㉢ 노인은 지혜로운 어떤 대책을 세운다.
- ㉣ 노인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 ㉤ 노인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노인이 사람들을 다양한 위험에서 구해주는 이야기이다. 위의 [표2]의 ㉡에서 ㉠~㉣의 각편은 호랑이나 구렁이 또는 지네 등에게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노인에 의해 구조되는 이야기이다. 호랑이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사람들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으나 노인은 아이를 지킨다. 또 아이가 개울물을 마실 때

지네가 함께 입속으로 들어가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노인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거나, 또는 부정으로 남편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주모(여인)를 구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면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2]의 ㉗에서 ①, ②, ③의 각편은 호랑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③의 각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큰 범이 한 마리…자동차에 달라드는데…사람들이 “이 안에 반다시 호식할 사람이 있다…시험을 해 보자.”…소지품을 하나씩…던져보아…범은…열서너 살 묵은 …그 아 꺼는…깎고 앉거던. “이 애가 호식할 애다… 내리라.”…삼대 독자라…기어이 끄집어 내루니…노인이… “이 사람들아, 젊은 아를 거 끄질게 내루면 범한테 우야노?…그 때에 이 영감으는, “…범한테 죽어도 같이 죽고 나캉 같이 내리가자.”…자동차는…갓 부렸어…보이께네 범도 갓뿌고 없어…내려와 보이께네…이 자동차가 굴러가지고…사람이 다 죽었어요…”

위의 각편 내용은 구성원이 자신들의 목숨만을 위해 호랑이가 나타나자 “이 애가 호식할 애다. 자 여 내리라.”고 어린아이를 호랑이에게 몰아넣으려고 하자, 노인이 “이 사람들아, 젊은 아를 거 끄질게 내루면 범한테 우야노?…” 하며 사람들을 꾸짖으며 “자 그럼 나캉 같이 내려가자… 범한테 죽어도 같이 죽고 나캉 같이 내리가자.”하면서 아이와 생사를 함께하고자 한다. 결국 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모두 자동차 사고로 죽고 노인과 아이만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인권의 문제와 결부된 이야기이다. 소수자·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차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²⁴⁾ 즉, 그 구성원들은 약자인 아이와 노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호랑이를 매개체로 하여 노인의

24) 권경숙, 『商賈說話 속 상인의 비인권 양상 고찰』, 『동남어문논집』 제33집, 동남어문학회, 2012, 6쪽.

행위는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반성적 사유를 하게 한다. 즉 호랑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반성적 사유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철학적 동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²⁵⁾ 있으면서 삶의 연륜이 깃든 노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다음 [표2]의 ㉔에서 ④, ⑤의 각편은 구렁이와 지네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미물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을 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이 중 ④의 각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른이…달로 먹었는데…집 근처에 사는 큰 구렁이…달구통에…들어 가는데, 그 영감이…창…썰러가지고…웅덩이…던졌던 모양이라. 그 녀이 화해가지고…그물로…삼치가…큰 녀이 걸려…그 녀을…국을 끓였어…숫가락을 가지고…건져 보이까네, 그 구렁이…찌를 때에 창 쪼티가…국에…있더라…영감도 참 경험이 있는 영감이지. “야들아, 국 묵지 마라.”…또 그 이듬해…딸이 얼마나 열려 났는지,…도리깨를 가지고…뿌아 뻗은 기라요…

위의 내용은 노인이 구렁이의 복수를 예견하고 미리 대처하는 이야기이다. 구렁이는 삼치, 딸기, 달래 등으로 화하여 노인과 가족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 하지만 노인은 “영감도 참 경험이 있는” 현실적 삶의 연륜으로 “야들아, 국 묵지 마라.”고 하면서 구렁이의 재앙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한다. 구렁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으로 구강을 선택한다. 즉, 생선인 삼치, 과일인 딸기, 야채인 달래로 화하여 그것을 섭취하도록 한다. 구강을 이용하는 복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렁이의 재앙도 노인의 삶의 경험적 지혜에는 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인은 ‘그 속에 담긴 이치를 깨달은 노인으로서 격물

25) 정규식, 『고전소설 속 동물 주인공의 의미와 위상-〈金現感虎〉·〈虎叱〉·〈서동지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33권, 한국고소설학회, 2012, 90쪽.

치지(格物致知)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 ‘나이 많음은 곧 쓸모없음’²⁶⁾이라는 인식이 오류임을 환기시킨다.

다음 각편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환경적인 이상 현상을 예견하여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인명의 손실을 막은 이야기이다. 다음 [표2]의 ㉔에서 ㉖의 각편 내용을 예로 제시한다.

할아버지는 나이 100이...넘어...아들...글을 가르쳤단 말이야...하루는...땡기면서 논으로...도랑으로...물을 가득 틀어 댔어요...“저 염감이 뭇 때문에 저러냐?”...달포만에...아랫 마을 상도문서...기와집에 불이 나서...어디 물이 있어요?...그 때 ...그 물 가지고 화재를 켜단 말야. ...“아, 염감님이 어떻게 된가 보다, 가만히 보니.” 그 답에 화재 지낸 다음 다시 물을 안 틀어 댔래. 그래니 그이는 천 길 내다보고 있는 거야...

위의 각편은 노인이 화재를 예견하고 대비하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내용이다. ‘할아버지는 나이 100이 넘’는 연로한 노인이다. 노인은 가을 건이가 끝난 논에 ‘땡기면서 논으로...도랑으로...물을 가득’ 채워놓는다. 노인의 행동에 사람들은 “저 염감이 뭇 때문에 저러냐?”면서 노인의 이상한 행동에 수군거리기만 한다. 그런데 달포 만에 기와집에 불이 났다. 가까운 곳에는 물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 때...그 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 사람들은 “그이는 천 길 내다보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노인이 예지력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는다.

화재는 모든 생명을 앗아간다. 따라서 자연조차 회생할 수 없는 재앙이다. 이러한 점은 무엇도 회생할 수 없게 하는 화재라는 재앙과 100살이 넘은 노인을 대조하여 노인의 지혜로운 혜안을 강조하는 효과가 생성되고 있다. 노인은 100세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다. 때문에 오랜 삶의 경험과 깊은 학식으로 실천적인 대안모색에 깨달음이 있는 존재로 부각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내적 편견을 반성하

26) 정규식, 앞의 논문, 205-206쪽.

게 하고 사람들에게 노인의 깊은 지혜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마주하게 한다. 그러므로 전통사회 노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인간 사회에서 ‘헝기켄기’와 같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할 만큼 나이를 많이 먹은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는 그와 같은 나이 든 구성원이 없는 사회보다 생존할 기회가 더 많²⁷⁾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유형에 등장하는 노인은 모든 생활에 있어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역사’로서의 노인, 풀기 어려운 일을 분명하게 밝혀 그 해결을 명쾌하게 지시하는 지혜와 규범의 척도로서의 노인들이다.²⁸⁾ 그러므로 구술문화가 중심인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구성원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2) 참된 인간성 제시형 : 공동체 유지 발전으로서의 소통

인간성은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요소이다. 더구나 참된 인간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유형의 설화 각편에서 노인은 남다른 위기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능력가이며, 공생의 전략가로 등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데, 특히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되고 올바른 인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27)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음, 임지원 옮김, 『섹스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2005, 236·242쪽.(헝기켄기: 렌넬섬 전체를 파괴했던 회오리바람)

28) 김선아, 『민담에 나타난 노인을 보는 몇 가지 시각』, 『한국노년문학연구』Ⅱ, 국학자료원, 1999, 292쪽.

한다. 해당 유형은 다음의 서사전개를 따른다.

- ㉠ 지혜로운 노인이 한 마을에 살거나 나타난다.
- ㉡ 노인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
- ㉢ 노인은 사람들을 굶기기/화해하기/배풀기/훈계하기를 한다.
- ㉣ 노인은 어떤 지혜나 행위로 사람들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 ㉤ 노인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거나 부자가 된다.

해당 유형은 노인이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해당 각편은 [표2]의 ㉡에서 ㉤까지이다. ㉡은 남편을 두고 외간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하는 주모를 뉘우치게 하고, ㉢은 버릇없는 손자에게 어른 공경의 당위성을 일깨워 준다. ㉣은 책만 읽는 선비에게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은 노인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 갈 뻔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의형제를 맺는 이야기이다. ㉠, ㉡는 노인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배려하는 내용이고, ㉢은 좋은 팔자만 찾는 젊은 사람에게 노인은 마음이 편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그 중 아래에 ㉢의 각편을 살펴보도록 한다.

칠팔십 노인들이...천리강산 들어간다...가다가... 숙소를 정하고 밥을 사 묵어가며, 서울 집에 찾아갔그던...배는 고푸지러...점잖은 게 어디 있노? 막 먹었다. 손자네들이...밥도 추접게 처먹고...영감이...요 놈들이 고약그던...여바라!...이 놈들...사흘만 옥에 가다났다가 내오느라!...오늘...좁쌀 서 말만 팔아 오느라. 사흘만에 떡 갖다 놓으이,...철철 흘리그던...밥을 와 흘리노!...“할배 잘못,... 했니더.”...그럼 몬 쓴다.....

위의 내용은 노인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시장하여 식사를 급하게 먹다 보니 밥을 흘리다가 손자에게 “밥도 추접게 처먹고”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버릇을 고치려고 ‘사흘만 옥에 가다났다가 좁쌀로 지은 밥을 먹게 하는데, 사흘을 굶은 손자가 밥을 ‘철철’ 흘리니 할아

버지는 호통을 친다. 손자는 “할배 잘못…했니더.”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 노인의 이러한 손자 버릇고치기는 상대와 동일한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만든다. 손자로 하여금 늙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아랫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호되게 체험하게 한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는 바로 사회와 국가 내의 인간관계로 확장하게 된다. 특히 효는 구체적이고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노인의 존재는 인간이 인격을 지닌 고등생명체로 살아가면서 진화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각편인 [표2]의 ⑨와 ⑩에서 전자는 글만 읽는 선비에게 경제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후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 중 ⑨의 각편을 예로 제시한다.

…한 선배가…하도 곤란해서, …이 부인네가 길쌈을 해가주, …끓여지고…장사하로 나간다. …웬 노인이…그게 머요?…베써더. …탕관카 바꾸자. …탕관을 탁 씨고 나이께, 소가 떡 돼뿌따. …소전에 가 말뚝에 떡 매 놓이, …이 소 값이 얼마요?…백정놈우 집이…끌레 갔다. …이때 무우…한 개를 묵었어. …사람이 떡 땀다. …그 놈우 영감 또 나올 기라고…할마이도 덮어 씨우이, …소가 두 마리라. …큰 굴이 하나 있는데, …은금 보화가 차가 있어. …두 바리 실고 나온다. …웬 사람이 혼자…이 대궐 시작해 놓고 돈이 없어 지을 수가 있나?…그 은금보화로…팔아가주꼴라, 궁궐로…지가주고, …그 사람 …벼슬을 맘대로 하고, 그래 잘 땀다 크데. [영감이 누구냐고 물으니, 사람은 아닌데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위의 내용은 집안의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선비에게 이인이 경제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선비는 억지로 장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도중에 노인이 “탕관카 바꾸자.”는 호의를 받아들여 ‘탕관을 탁 씨고 나이께, 소가 떡 돼뿌따’. 선비는 자신이 사람임을 밝힐 수 없는 인간의 정체성 상실을

경험한다. 노인은 경제력이 없는 선비의 무능함을 바로잡기 위해 ‘계기적 트릭’²⁹⁾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소처럼 일을 하게 하여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귀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내용에서 노인이 트릭을 사용하여 선비의 물건을 빼앗지만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은 아닌데 무엇인지 모른다.”는 구술자의 의견이 뒷받침해준다. 결국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의 무책임함을 꾸짖는데, 신적인 능력을 보유한 노인으로 설정한 것은 노인은 단순한 자애의 표상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2]의 ⑪, ⑫, ⑬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이 중 ⑪의 각편을 예로 제시한다.

영동 할배가 말이지, ...세경으로 받아...없는 사람 주고, ...고을에서, ...요기를 사... 주고, ...그래 가지고 마...세상을 떠났어요...참 제사도, 그런게나 장리(葬禮)도 크기 했던 기라...인심을 얻어 놓은게네 그 고을서 많이 협력을 해 준 것 아입니까예, ...영동 고을엔 말이지, ... 한 칠팔월(七八月) 나락이...올라 올 제, ...바람이...불어 가이고, 밭곡식도 콩, 뽕, 나락이니 못 먹게 돼 가 있거든... 천하없이 그래도, 거어는 안 그래예.

위의 각편 내용은 노인이 빈곤한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즉, ‘세경으로 받아...없는 사람’을 주거나, 또 “...요기를 사...주고”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이웃들은 “참 제사도, 그런게나 장리(葬禮)도 크”게 지내준다. 노인의 사후는 생전보다 장대한 대접을 받는다. 사람들은 노인이 사후에도 “바람이...불어 가이고, 밭곡식도 콩, 뽕, 나락이니 못 먹게 돼 가 있거든... 천하없이 그래도, 거어는 안 그래예.” 라고 하

29) 권경숙, 『상인 트릭스터담의 성격과 전승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30집, 동남어문학회, 2010, 156쪽 참조.

면서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노인은 살아서는 빈곤한 이웃을 위해 배려하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죽어서는 마을의 안녕을 담당하는 신으로 신격화된다.

이렇게 서로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통한 결과는 사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신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에는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배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서의 노인의 배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있다. 즉, 노인의 사회적 소통은 ‘배려의 소통’인 것이다.

지금까지 ‘참된 인간형 제시형’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은 조부모에 대한 효, 경제활동의 필요성, 타인을 위한 배려 등을 훈계하고 실천하면서 사회와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노인설화를 통한 보편적 인간문제와 사회 관계적 소통의 가치 성찰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설화를 통한 노인의 보편적 인간문제와 사회 관계적 소통으로의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에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볼만한 인문학적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다. 즉, 노인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재조명되어야 함이다. 특히 노인들의 자기성찰 문제는 공포와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가 반영되었고,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각 유형에서는 노인을 통하여 인간의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와 소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존감 구현으로서의 존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구현함으로써, 노인은 성담론의 주체가 된다. 그리하여 노인은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서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노인들은 성욕이 미미하거나 없는 존재, 또는 중성적인 존재로 여겨지거나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노인들을 점잖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다.³⁰⁾ 그러나 노인들의 성관련 활동은 여전히 삶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 극복형에서 노인은 현존 지향성으로서의 존재성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은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어떤 대상과 자신을 관계 맺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을 실제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떤 대상과의 관계적 존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의 개별적 자아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 계기를 통해 재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들의 느낌은 ‘늙으면 다 마찬가지’라는 지배문화의 속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압력은 노인들의 정체감 유지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³¹⁾ 모든 인간의 공통의 미래인 노년은 그 시기와 맞닥뜨린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흑인의 문제는 백인의 문제이며, 여성의 문제는 남성들의 문제인 것처럼’³²⁾ 노인의 문제는 노인 이전 사람들의 문제이므로 노인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긴다.

세 번째, 재난문제 해결형에서 살펴본 통섭적 지식으로서 소통하는 노인은 우리 삶의 멘토이다. 우리는, 노인은 언제나 받기만 하는 존재, 섬

30) 한영현, 『노인 성의식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제15권, 한국노년학연구회, 2006, 134-135쪽.

31) 정진웅, 앞의 책, 153쪽.

32) 시몬 드 보부아르 저,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120쪽.

겨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노인들은 주기도 하는 존재이다. 하물며 자신들은 국가와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버린 국가와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목숨도 초월한 존재들이다. 그것은 ‘쓸모없음’의 이유로 ‘고려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인한 ‘노인폭력’³³⁾에 처처럼 노인들은 원망은커녕 국가의 미래, 나아가 자식들의 앞날에 닥칠 위기를 걱정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준다. 즉 노인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노인은 사회구성원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은 창고’이며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대비는 바로 ‘늙은 자들의 몫’³⁴⁾이며 권리인 것이다.

네 번째, 참된 인간성 제시형에서 노인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그 공을 기여한다. 노인은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가치의식을 후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즉, 노인은 관념적 윤리성보다는 현실법칙에 대한 경험적 이해 속에서 생활적 윤리를 형성하고 공유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또 사람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훈계, 배려, 용서, 화해라는 설득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노인이 사람들의 잘못된 인간성을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했다면, 배려나 용서 그리고 화해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늙음과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데서 노인들의 인간학적 가치를 찾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여긴다.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그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의 가능/불가능으로만 노인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늙음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는 늙어간다는 것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의 삶으로 간주하지만, 늙음은 누구에게나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노인설화에서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더 이상 노년이 퇴행과 쇠퇴의 과정이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가 아

33) 정규식, 앞의 논문 참조

34) 강인옥, 『노인, 인류의 진화를 인도하다』,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세상, 2013, 182쪽.

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찰해야 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구비설화인 노인설화를 대상으로 타자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노인을 살펴보았다. 노인을 자연과학의 대상이나 사회과학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우리사회의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노년 인문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인은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가치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자존감 문제나 공동체와의 소통문제 등은 연령 문제와 동일시 될 수 없었다. 특히 노인의 성적 표현은 어른답지 못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 본능의 표현이며, 노인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행위는 오랜 경험에서 생성되는 연륜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노인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내재하고 있었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소통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노인들의 지위가 추락한 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령주의에 입각하여 노인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자 공존 대상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수백 년간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노인의 지혜는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노인인문학 성찰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간호옥, 「한국 說話文學에 나타난 老人에 대한 孝思想 연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9집, 인문과학연구소, 2000, 239-262쪽.
- 강인옥, 「노인, 인류의 진화를 인도하다」,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세상, 2013, 174-183쪽.
- 권경숙, 「商賈說話 속 상인의 비인권 양상 고찰」, 『동남어문논집』제33집, 동남어문학회, 2012, 153-177쪽.
- 김국희,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원형의 계승과 변이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선아, 「민담에 나타난 노인을 보는 몇 가지 시각」,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9, 285-314쪽.
- 김양진,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세얼어문논집』제17집, 세얼어문학회, 2005, 197-227쪽.
- 김양진, 「한국고전문학의 노인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옥, 「傀儡」, 『이옥전집』2권, 휴머니스트, 2009, 403-444쪽.
-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409-450쪽.
- 이재형, 「리빙 라이브러리의 비판적 검토와 독서 교육적 함의」, 『동남어문』제41집, 동남어문학회, 2016, 69-88쪽.
- 장일순,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사회과학연구』31권 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175-195쪽.
- 정규식, 「고전소설 속 동물 주인공의 의미와 위상-〈金現感虎〉·〈虎叱〉·〈서동지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33권, 한국고소설학회, 2012, 83-111쪽.

- 정규식,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설화의 재해석과 인문학적 성찰』, 『국어국문학』제177집, 국어국문학회, 2016, 191-219쪽.
- 정상진, 『구비〈노인재혼담〉에 투영된 효의식』, 『한국민족문화』2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147-175쪽.
-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 최기숙, 『노화의 공포와 공생 지향의 상상력-구비설화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436-11 유형)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제29호, 한국여성문학회, 2013, 195-230쪽.

<Abstract>

A Study on the survival strategies and symbiotic logic of elderly people in folk tale*

Kwon, Kyoung-Sook**

As the modern society has dramatically become aging society, the traditional value toward the elderly also has been changed and collapsed. This weakens the social position of the seni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offsprings, which used to be vertical, is changed into a horizontal relation or even worse. Since role loss of the elders and the erosion of the value become a social issue, it is obvious that welfare for the aged and elderly employment have received the spotlight from the society.

In this paper, as the title of “Surviving strategy and co-existence of Old people in Oral folktales” indicates, it is studied that the elderly from the folktales lead an independent life with the active attitude toward interaction with the society. The existing classical literature studies about the elderly have been scatteringly dealt, and studies about the aged in the folktales have been inactive. Moreover, most of those studies deal with the elders as a Third person.

Therefore, in this paper studies the seniors with active attitude and insists their wisdom is still necessary for our life as a mento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16S1A5B5A07916487)

** Dong-A University

Furthermore, the Humanistic value is studied with the folktales about the elders.

Key Words : Oral folktale, old people, communication, solving problem, identity, sexual desire, surviving strategy, co-existence

■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 게재확정 : 2017년 8월 21일

